



[보도자료]

여권 없이 생체인식으로 출국하는 스마트 공항 시대 열린다

- 제 75 차 IATA 연차총회 결의안 채택 -

서울 (2019년 6월 2일) – 국제항공운송협회(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; 이하 IATA)는 제 75 차 연차총회에서 종이 서류 없이 승객의 생체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여객수속을 간소화하는 One ID 계획의 이행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.

알렉산드르 드 주니악(Alexandre de Juniac) IATA 사무총장 겸 CEO는 “One ID 개념을 활용한 생체인식을 통해 승객들은 현대화된 공항을 경험할 수 있고, 신원확인 과정의 효율성 및 보안성은 강화된다. 디지털 신원과 데이터 교환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승객들에게 한층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여행자들은 여권, 탑승권 등 종이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체크인에서 탑승까지 편리하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”고 밝혔다.

IATA의 One ID 계획 결의안은 항공사, 공항, 정부 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이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종이 서류 없는(paperless) 여객수속의 촉진 및 도입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.

결의안을 통해 항공사들은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가입국이 디지털 신분증 사양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. 디지털 신분증은 보안성 및 효율성이 뛰어나 여권을 대체할 수 있다. 항공사들은 또한 항공 업계가 각국 정부와 협력해 승객 신원정보를 안전하게 전송 및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각종 정보보호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며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.

One ID 계획의 비전은 승객들이 생체정보만을 사용하여 세계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이는 디지털 생체인식기술을 비롯해 권한을 가진 여러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신원관리 플랫폼을 통해 구현 가능하다.

One ID 개념을 적용한 시스템은 현재 ▲아루바국제공항,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외 미국 내 공항 다수 ▲히드로공항 ▲시드니공항 ▲스키폴공항 ▲창이공항 ▲두바이국제공항 등 세계 각국 공항의 국내선 탑승수속에 시범운영 되고 있다.

다음 과제는 승객과 함께 국경을 넘은 생체정보가 도착국가에서 인식되는 국제선 대상 시범운영이다. One ID 계획은 IATA의 NEXTT 비전 2035(NEXTT Vision 2035) 사업의 일환이다.

###

미디어 문의

[IATA]

Albert Tjoeng / Assistant Director, Corporate Communication AP / tjoenga@iata.org



[국내 홍보 대행사 케첩] SKR-IATA@ketchum.com

신혁수 사원 / David Shin, Account Executive / 02-559-9603

김승윤 사원 / June Kim, Account Executive / 02-559-9627

김성이 부장 / Sunny Kim, Account Director / 02-559-9621